

## 국제신문 정상화 요청

# 탄 원 서

존경하는 판사님.

국제신문은 78년 역사를 가진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대표 일간지입니다. 6.25 전쟁 시절 전쟁의 참상을 앞장서 알렸던 국제신문은 1980년대 군사독재시절 강제 폐간되는 위기에 도 9년 만에 복간하며 지역 대표 언론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70여 년 넘게 지역의 정론으로서 역할을 해 온 국제신문은 최근 그 존립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대주주와 이전 경영진의 무책임한 경영으로 부채는 눈덩이처럼 늘어나 있고, 임금마저 체불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제신문의 경영 위기는 곧 언론으로서의 역할 약화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우리 지역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국제신문의 위기는 단순히 한 언론사의 경영난을 넘어 지역 민주주의와 공론장의 위기입니다. 국제신문은 언론으로서 우리 지역에서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때로는 우리 사회의 명령으로서 꼭 필요한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해왔고, 때로는 우리 사회의 기록자로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와 인물들을 충실히 기록해왔습니다. 권력을 비판, 감시하는 제4부로서의 역할도 꾸준히 수행했습니다. 부산 시민, 시민단체, 기초단체장 및 시의회, 상공회의소 등 각계각층에서 국제신문의 정상화를 지지한 것도 바로 이런 중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국제신문이 이번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된다면, 지역사회 민주주의와 공론장의 후퇴를 불러오며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피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국제신문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금 지역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언론이 없는 정부보다 정부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는 유명한 말처럼 언론은 우리 사회, 우리 민주주의에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며, 이는 시대가 변하더라도 바뀌지 않을 가치입니다. 국제신문은 70여 년 동안 지역 공론장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지금도 국제신문에는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자 하는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국제신문의 이러한 가치와 자산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재판부의 지혜로운 판단을 간절히 구합니다.

끝.